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 | | | | | | | | |　　성 명 (　　)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일반적 유의사항
1. 사회계 문제지는 총 00장 00쪽(표지제외)입니다. 2. 문제지의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지 표지와 답안지 상단에 지원학부(과), 수험번호(10자리),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논제번호(예: Ⅰ, Ⅱ…)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제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합니다. 4. 답안지는 좌우 넘김입니다. 답안지의 위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5. 답안지는 모든 논제를 포함하여 반드시 최종 1장만 제출합니다. 고사 종료 10분 전부터는 답안지 교체가 불가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지정된 답안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7. 답안 정정 시에는 인문·체육/사회계 논제Ⅰ·Ⅱ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 자연/의·약학계, 사회계 논제Ⅲ은 두 줄을 긋고 정정·작성합니다. 8.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9. 답안은 한국어, 숫자, 수학 기호로 작성하며, 한국어 외 다른 언어, 특수문자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10. 검정색 필기구(흑색 연필 포함) 외 색깔 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2. 위 내용 위반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사시간은 120분입니다. 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고사 중 지원자 전체를 영상 촬영합니다. 3. 휴대전화, 전자기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기타 통신기기 등은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지한 가방에 넣습니다. 가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고사실 앞이나 뒤 또는 양옆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후 위 물품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됩니다. 4. 고사 중 화장실 이용 시에는 감독관이 동행합니다. 휴대폰, 전자기기 소지 등 보안 점검을 위해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고사 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5. 고사 종료 전 중도 퇴실은 불가합니다. 6. 종료령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7.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는 고사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8. 고사 종료 후 퇴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을 챙겨 퇴실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가방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없도록 잘 확인 후 수험생 본인의 가방을 챙겨 퇴실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온라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사회적 행운은 부유한 가정에서의 출생, 성장 기간 중 교육의 혜택, 상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세 가지 혜택은 출생으로 인해 개인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행운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 혜택 모두가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 중에 개인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출생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길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행운은 분배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이러한 원리는 가혹하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부와 욕망을 숨기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인재들을 고용하여 탈세를 연구하게 만들고 법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 그들이 기울인 노력과 지출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벌 2세와 3세들이 누리는 부는 사회적 행운일 뿐이다. 그들의 노력은 상속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속 이전까지 그들이 그 부에 투여한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부는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강력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소유한 부를 존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1세대가 들인 노력의 대가로써 자신의 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증여에는 강력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회수된 자원은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부나 자원이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게 형성된 사회질서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질서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게 형성되었다면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자유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를 가족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상속된다는 점이다. 가족과 상속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자유주의 사회에서 어떤 노력과도 결합되지 않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 그러나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것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은 거부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상속이 빚어내는 지속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이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교정될 때, 그 사회가 정당화될 수 있다. '기업가의 자녀'와 '노동자의 자녀'의 인생 전망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맥락이 여기에 있으며, 이들 사이에 놓인 불평등이 최대한 교정될 때 자유주의 사회는 정당화될 수 있다.

[나]

공평이라는 개념은 일단 동일성의 의미를 벗어나면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공평은 필요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몫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무엇이 공평한 몫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부를 가져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정말로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혹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사람들이 얻는 몫이 그들이 만들어 낸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상품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노동하고 생산하도록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누가 의사가 되고, 누가 변호사가 되며, 누가 쓰레기 수거원이 되고, 누가 거리의 청소부가 될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무엇이 보장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강제력이나 강제력의 위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핵심은 단순히 현실이 이상과 다를 것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공평한 몫이라는 이상, 또는 이와 가까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이상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충돌은 결과의 평등을 사회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대체로 공포에 의한 지배였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캄보디아 사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에 의해서도 결과의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광범위한 불평등은 계속 남아 있었다. 즉,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의 권력 불평등뿐 아니라, 물질적 생활 수준의 불평등도 지속되었다.

[다]

인간 발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교육이나 직업 기회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직업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 그 답은 여러 단계에 걸친 개인과 환경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다음 면에 계속>

결과이다. 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얻은 발달 기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역량을 발달시킬까? 역량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특성과 역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학 방정식을 잘 처리할 역량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이런 특성을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세라'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세라는 21세기 산업국가가 아닌, 수학적 추상 개념도 모르고 문자도 없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농촌 공동체에서 태어났다. 세라는 절대로 수학적 역량을 발달시키지 못할 것이다. 유전자 결정론자들이 가정하듯이 세라의 특성 가운데 일부가 순전히 유전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역량도 유전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방정식 풀기, 자동차 운전, 영어 구사와 같은 역량들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나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고 다양한 인간 노력 분야를 창조했다. 새로운 활동과 사회적 형태를 고안할 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간의 역량도 고안한다. 세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발달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인간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넓은 범위의 발달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인간 역량의 발달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 사이에 발생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개인의 역량의 차이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상호작용의 누적적 결과물이다. 곧 사회 불평등은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기회가 어떤 개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상호작용하고 다른 개인에게는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상호작용한다. 사회 불평등은 완전히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는 개인의 발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 불평등을 교정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업 교육과 평생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일생에 걸쳐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도 획일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수학 교사를 제공해야 하고, 운동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재능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라]

영국은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1년 동안 노동자 100명이 필요하고,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려면 1년 동안 노동자 120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영국은 직접 포도주를 생산하기보다 옷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포도주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1년 동안 노동자 80명이 필요하고,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1년 동안 노동자 9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르투갈의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영국에 수출하고, 그 수입으로 영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교환, 즉 무역은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옷감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다시 말해 포르투갈은 노동자 90명만으로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지만, 자본과 노동을 옷감 생산으로 돌리기보다 포도주 생산에 집중한 뒤, 그 포도주를 수출하여 영국산 옷감을 수입하는 편이 더 많은 옷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은 옷감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노동자 100명이 필요한 영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영국은 자국에서 노동자 100명이 필요해 생산한 옷감 한 단위를 수출하여, 포르투갈에서 노동자 80명으로 생산한 포도주 한 단위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은 한 나라 안의 개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영국 안에서는 노동자 100명이 생산한 물건이 노동자 80명이 생산한 물건과 그대로 교환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는 영국 노동자 100명이 생산한 물건이 포르투갈 노동자 80명이 생산한 물건, 러시아 노동자 60명이 생산한 물건, 또는 동아시아 노동자 120명이 생산한 물건과 교환될 수 있다.

한 나라 내부의 거래와 국가 간 거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자본의 이동성 차이 때문이다. 한 나라 안에서는 자본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자본을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처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마]

전 세계의 각 국가는 기후, 지형 등과 같은 자연환경이 다르고 천연자원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다. 또 인구, 교육 수준, 경제 규모 등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므로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조건에서 상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비슷한 상품이라도 생산비에 차이가 나게 된다.

<다음 면에 계속>

1970년 5,8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무역 규모는 10년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0년대 이후 더욱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38조 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무역 기구의 등장과 국가 간의 자유 무역 협정 체계로 인해 국제 거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은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낮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 경기 위축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금융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등과 같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연관 산업의 생산이 타격을 받아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 무역의 확대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어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바]

수출은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를 통하여 기업들이 생산원가를 감소시키도록 함으로써 국내외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은 국내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해외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시설 확충과 더불어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출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이 분야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수입은 기업 간의 경쟁이 없거나 미흡했던 시장에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 확대 이후 산업구조나 고용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외국 상품과의 경쟁뿐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국내기업은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던 원재료나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생산 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산업이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나치게 오래 차단될 경우, 기업은 비용을 낮추거나 품질을 개선하려는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경쟁은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 부족한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사]

주변부 경제국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에 특화하여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적 제조업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이 나라들이 제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육성하여 기술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낮은 상대임금은 장기적으로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비교우위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변부 경제국들은 왜 제조업 발전에 실패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 공업국들이 이미 매우 큰 비용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발국이 이러한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아직 경쟁력이 약하지만 장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즉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가 필요했고, 식민지를 지배하던 국가들은 피식민지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자유무역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세를 높여 후발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선택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주장한 발전국가적 접근은 국가가 관세와 산업정책을 통해 후발국의 초기 제조업을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받아들였다면 주변부 경제국들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산업을 보호해야 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기술과 생산 경험을 축적하여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경제학자 밀 역시 특정 산업에서 한 나라의 우위가 반드시 천연자원이나 기후 같은 선천적 조건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나라가 먼저 생산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으면, 처음에는 별다른 우위가 없던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나 조정 없이 시장에만 맡겨 두면, 기업들은 장기적인 학습 효과가 큰 산업보다 당장 이윤이 많이 나는 활동을 선택하기 쉽다. 그 결과 후발국에서는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고, 1870년부터 1950년 사이에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혁신에 유리한 경제활동은 점점 더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었다.

---

* 디플레이션: 국가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다음 면에 계속>

<자료> 다음 자료는 한 국가에서 GDP 대비 수입액·수출액 비율, 제조업 고용 규모, 임금 불평등, 수입 소비재 품목 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연도	GDP 대비 수입액 비율	GDP 대비 수출액 비율	제조업 고용 규모 (백만 명)	임금 불평등 지수	수입 소비재 품목 수	소비자 물가지수
1970	0.054	0.051	19.8	0.21	45	106
1980	0.098	0.087	18.7	0.23	58	104
1990	0.091	0.092	18.9	0.25	72	102
2000	0.133	0.137	17.3	0.31	96	101
2010	0.158	0.162	13.9	0.34	121	99
2020	0.165	0.171	12.3	0.35	148	98

[논제 Ⅰ]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Ⅱ]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끝>